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설명회가 성토장으로

"차라리 식당 안하고 말지…"

"적은 공무원 숫자로 수 만개에 달하는 음식점을 단속하는 것보다 쇠고기를 유통하는 도매업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요.""음식 재료들은 가격에 따라 자주 변하는 데 그때마다 메뉴판을 매번 바꾸란 말인가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식당 업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15일 오후 광주시 남구 구동 시민회관에서 열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설명회'에서 식당 업주들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을 강력히 토로했다. 특히 밀어붙이기식 정책시행으로 식당 업주들의 일방적인 책임만 강요하는 정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서 D도시락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경순(여·35)씨는 "쇠고기를 식당에 납품하는 도매업자들이 몰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판매할 경우 처벌은 영세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가 받는 것 아닌가"라며 "쇠고기 판매 도매업자에 대한 검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모 도매업자가 자신에게 한우에 수입산 쇠고기를 섞어 납품하다가 적발한 사실을 밝히며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씨는 또 "일본처럼 소가 태어날 때부터 바코드를 삽입해 꾸준히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굳이 표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식당 업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경직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서 J분식점을 운영하는 염창호(29)씨는 "가격에 맞게 음식 재료들을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번갈아 가며 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메뉴판을 바꾸란 말이냐"며 "거래명세표와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등을 일일이 챙겨두고 있지만 졸속 정책만 만들어 놓고 무조건 강요하는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업주들은 업종변경이나 식당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는 데다 쇠고기 파동으로 찾는 손님들이 줄어드는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쇠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불황으로 인해 장사가 안되는데 쇠고기 파동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

과학과 법률 '윈윈 만남'

광주과기원-광주지검 업무 협약식

검찰은 과학 수사 기법을, 과학자들은 연구 관련 법률 자문을 얻는 상호 '윈윈 협약'이 체결된다.

광주과학기술원(원장 선우중호)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황희철)이 16일 오후 4시 광주과기원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는다. 광주과기원은 검찰 수사에 필수적인 과학적 도움을 주고, 광주지검은 과학기술 연구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두 기관의 업무 협약은 범죄가 지능화·첨단화됨에 따라 휴대전화나 이메일, 컴퓨터 등이 각종 범죄의 주요 증거로 떠오르는 추세에 발맞춘 것이다. 각종 기술유출 사건이 잦아지는 것도 큰 이유다.

광주지검 이성윤 검사는 "황우석 사건에서 보듯 과학을 모르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며 "용의자로부터 얻은 휴대전화나 이메일 정보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과학적 자문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과기원 소속 교수들은 앞으로 광주지검 내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광주과기원 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은 광주지검으로부터 국내·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나 특허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 후에는 광주과기원 하동수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세미나에서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정보를 법정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채취하는 기술적 방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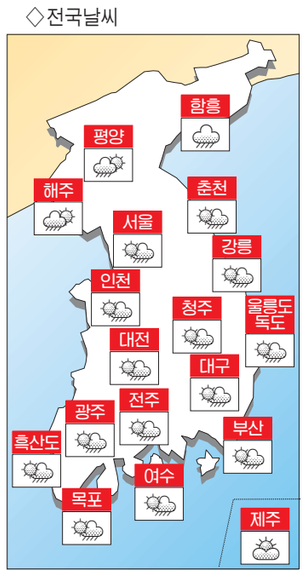
반갑다 비!

7월 16일 (음 6월 14일)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다.

◇전국날씨

광 주	흐려져 밤에 비	25~31℃
목 포	흐려져 밤에 비	24~29℃
여 수	차차 흐려짐	24~28℃
완 도	흐려져 밤에 비	24~30℃
구 례	흐려져 밤에 비	25~32℃
해 남	흐려져 밤에 비	23~30℃
장 흥	흐려져 밤에 비	23~30℃
고 흥	차차 흐려짐	23~30℃
순 천	흐려져 밤에 비	24~31℃
영 광	흐려져 밤에 비	25~30℃
진 도	흐려져 밤에 비	24~31℃
전 주	흐려져 밤에 비	24~31℃
남 원	흐려져 밤에 비	23~31℃
흑산도	흐려져 밤에 비	22~28℃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0.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목 포 밀물 01:07 12:37 썰물 06:45 18:17
여 수 밀물 07:36 20:35 썰물 02:09 13:42

▲해뜸 05:30 ▲해짐 19:47 ▲달뜸 18:31 ▲달짐 03:0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날 씨						
최저/최고	25/30	25/31	25/29	25/28	24/29	24/30

"미 쇠고기 불매운동·봉쇄"

시민단체 방침에 유통 과정 마찰 예상

최근 광주에서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유통이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불매운동은 물론 봉쇄투쟁까지 벌인다는 방침을 밝혀 유통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관계자 30여명은 1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A 쇠고기 유통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업체를 항의방문했다.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쇠고기 수입 및 유통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유통을 반대하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 수입 쇠고기를 유통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유통 및 판매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시·도민에게 공개하고, 대규모 시민 불매운동을 통해 이들 업체가 판매를 포기하는 순간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 관계자들은 이어 A 유통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주 미국산 쇠고기 1t 가량을 매입해 지금까지 50%가량을 도·소매점에 판매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미국산 쇠고기 유통·판매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이미 납품을 계약한 업체들이 많아 유통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해서 취급할지는 오는 18일까지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상시국회의 대표들은 면담 후에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기간, 원산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18일까지 이 업체의 답변을 기다린 다음 불매운동 및 봉쇄투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와 판매업소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인 광주시 광산구 A업체를 방문, 냉동창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여름휴가 8월 상순이 무난

기상청 "7월 하순 많은 비, 8월 중순 국지성 호우"

여름 휴가 일정을 7월 하순이나 8월 중순보다 8월 상순으로 잡는 게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인 20~27도의 분포로 예년처럼 무더울 것"이라며 "특히 8월 상순에는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고 강수량도 예년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하순에는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8월 중순에는 대기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이 시기에 휴가 일정을 잡은 사람은 자칫하면 비 때문에 모처럼만의 휴가를 망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7월 하순에는 대기불안정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은 평년(50~135㎜)보다 많겠지만 기온은 평년(20~27도)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다음달 상순인 1~10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평년(20~27도)보다 다소 높고 강수량은 평년(39~133㎜)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무덥고 곳에 따라 비도 많이 내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다음달 상순 정도에 휴가를 잡는 것이 비교적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짜 한우 음식점' 상대 21명 손배소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상무지구 H 음식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15일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에 따르면 H 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했던 기간인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이 음식점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 상품권, 포인트 카드 등을 소지한 피해자 21명과 함께 다음주 중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두 단체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며 "또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선례를 남기는 것도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해당 업소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함께 제기할 계획이며, 민사소송은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의 노강규 변호사, 형사소송은 광주경실련 법률지원단 이정학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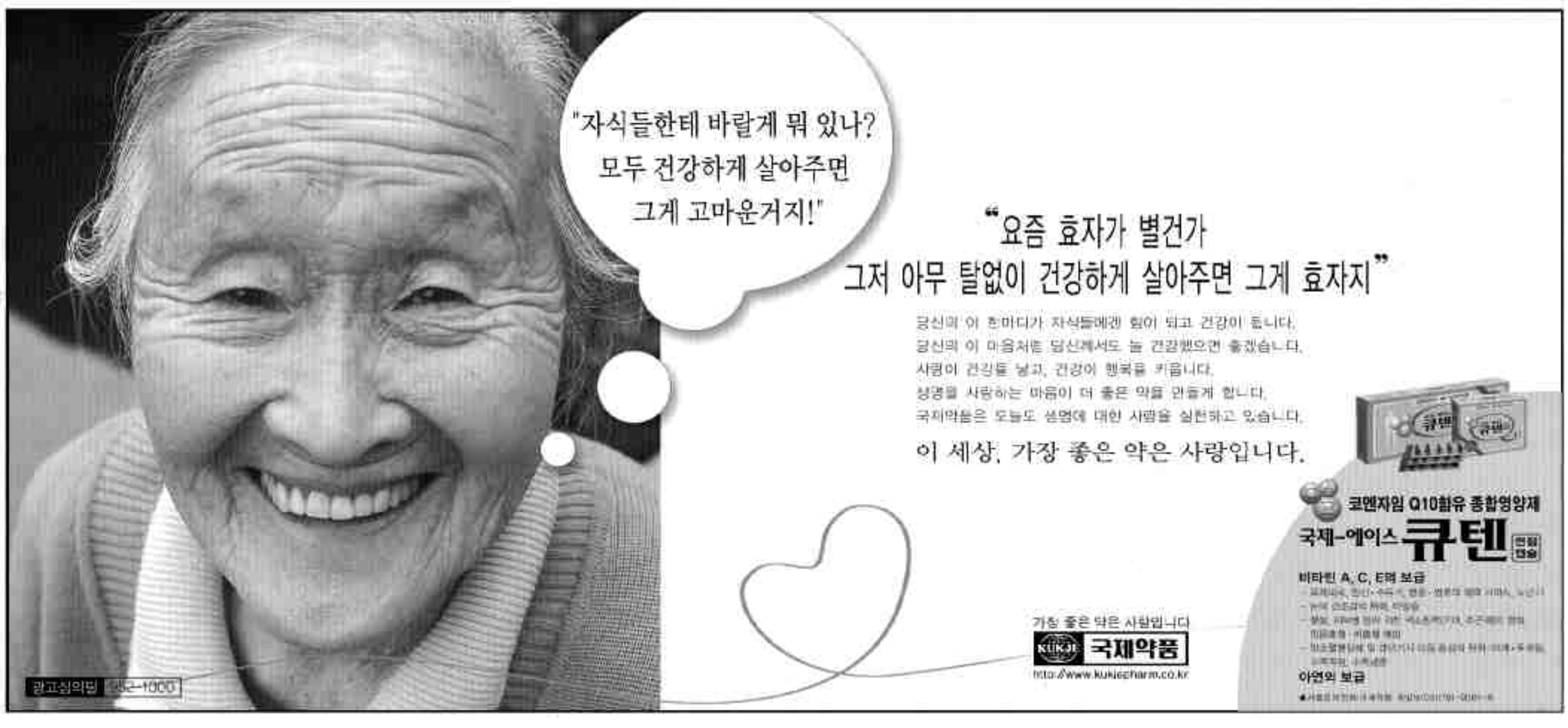
한편 식약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벌여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H 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온 것을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안현주기자 ahj@

광주서부교육장 양세열씨

양세열(61) 광주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이 공모제로 진행된 광주 서부교육장에 선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5일 교육계 원로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서류·발표·면접심사를 벌인 결과 2명의 지원자 중 양 국장을 서부교육장에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육감은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양 국장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열린 광주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장휘국 위원이 "응모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한 서부교육장 공모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무늬만 공모제'"라고 지적하는 등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이 있어온 터여서 후유증도 예상된다.

한편 양 국장은 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장학사, 시교육청 장학사·장학관, 효동초·매곡초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